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4090.59	↑ 코스닥	938.83
	(-76.57)		(+1.49)
↓ 금리	3.000	↓ 환율	1473.35
	(-0.093)		(-0.35)

정용진, 美 ‘AI 수출전략’ 들고오나… 물류시스템 혁신 기대

〈신세계그룹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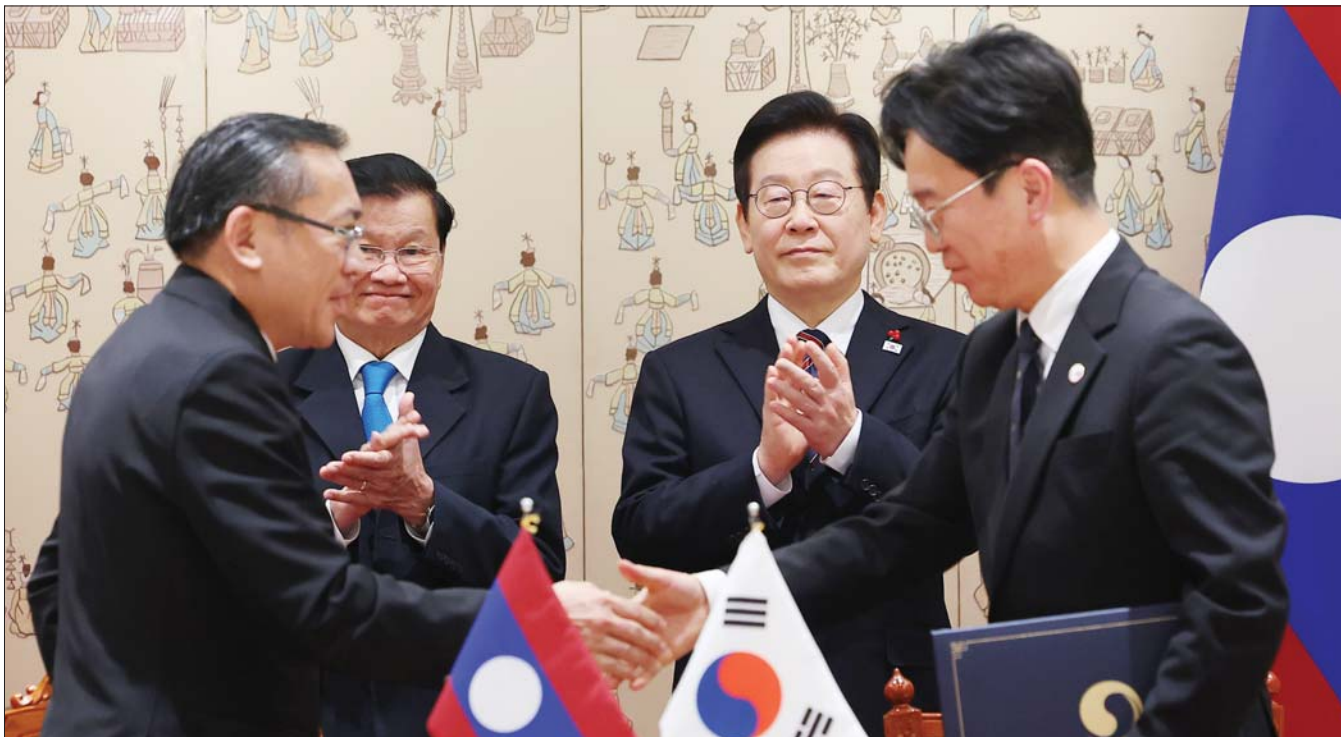
‘AI 유통’ 청사진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 설계자
美 과학정책실장과 단독 면담

양국 AI 협력 확대, 기술 도입엔
정부차원 대출 등 파격혜택 제공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들과 만나며 글로벌 네트워크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를 만나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수출 전략’이 국내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 회장은 현지시각으로 12일 저녁 J.D 벤스 부통령과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찾아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정책실장과 단독 면담을 갖고 미국 정부의 AI 전략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유통 선진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로, 현재 미국 상무부가 추진 중인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America AI Exports Program)’의 설계자다.



韓-라오스, 고용허가제 인력송출 양해각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포싸이 싸이나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통문 시술식 라오스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핵심 대외 전략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최적화 반도체와 서버 등 하드웨어부터 클라우드 인프라, 파운데이션 모델(LLM), 사이버 보안 체계까지를

하나의 ‘풀스택(Full-Stack)’ 패키지로 묶어 동맹국에 수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2025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한-미 기술변역 MOU’를 체결하며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판매를 넘어 미국의 AI 기술 표준을 동맹국에 이식함으로써 중국 등 경쟁국의 기술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도입 기업에는 미 연방 정부 차원의 직접 대출, 투자 보증, 기술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최근 신세계그룹 계열사 G마켓도 알리바바가 보유한 AI 기술과 협력에 나섰다. 이는 신세계그룹이 자체 기술 개발보다 검증된 외부 기술을 수혈하는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쟁사인 쿠팡이 지난 10년 간 수조원을 들여 자체 물류 알고리즘을 내재화하며 ‘우리는 미국의 기술 기업’이라고 천명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신세계가 미국 정부라는 강력한 우군을 등에 업는다면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동시에 혁신해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정 회장이 관심을 표한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이 실제 도입될 경우 신세계그룹 차원 물류망에 AI를 적용해 배송 및 재고 효율을 높이는 ‘물류 시스템 고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마트 등이 산지로부터 신선식품을 들여올 때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라이싱(Pricing)’ 기술의 접목, 이커머스 사업 부문에서 고객이 검색하거나 찾아본 상품 기록을 바탕으로 AI가 최적의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는 ‘개인화 상품 추천’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 전망된다.

〈2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한화, 상업선·군함 美 조선 투트랙 완성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이어
오스탈 지분 확보, 최대주주 올라
“美 조선시장 전체 연결통로 확보”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호주 오스탈사 지분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미국 상업 조선 시장과 해군 함정 시장이라는 두 축을 모두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상업선과 군함은 조달 체계와 규제가 크게 달라 한 기업이 두 시장에 동시에 진입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이번 조치가 한화의 미국 조선·방산 공급망 내 입지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한화그룹의 오스탈 지분 최대 19.9% 인수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3월 9.91%를 취득한 지 9개월 만의 추가 확보다. 앞서 미국 정부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검토를 통해 한화의 지분 확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



한화그룹이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 오스탈의 미국 모빌 조선소의 전경. /오스탈 홈페이지

는다고 결론 내렸다. 호주와 미국이 모두 승인한 만큼 한화는 기존 최대주주인 타타랑벤처스(19.28%)를 넘어 사실상 오스탈의 최대주주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해외 기업이 미 해군 조달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된 조선소의 주요 지분을 확보하는 사례는 흔치 않아, 이번 승인은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업체로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오스탈

USA’를 운영하면서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LCS), 고속수송함(EPF), 잠수함 모듈 등 핵심 프로그램을 수행해 온 기업이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군수지원함 시장 점유율 40~60%를 차지하는 강자로 오스탈 USA는 미국 기업으로 분류돼 미 정부 조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화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조달 자격이나 기존 프로그램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 해군이 개량형 EPF 등 후속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화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한화는 이미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상업선·연안 운송 시장과 연결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오스탈 지분 확보로 해군 함정 분야까지 확보되면서 한화는 상업 조선과 방산 조선을 모두 아우르는 ‘투트랙 구조’를 갖춘 국내 최초 기업이 됐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롯데호텔앤리조트, 美 뉴욕호텔 부지 인수

건물 이어 7000억원 부지 매입
임차료 인상부담 등 해소될 듯

롯데호텔앤리조트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인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의 부지를 약 7000억원에 매입했다. 10년전 호텔 건물을 인수한 데 이어 토지 소유권까지 확보하며 완전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롯데호텔앤리조트(이하롯데호텔)는 뉴욕 대교구가 보유하고 있던 롯데뉴욕팰리스 호텔 부지를 4억9000만 달러(한화 약 7000억원)에 인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롯데호텔은 2015년 뉴욕 최초의 5성급 호텔인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을 인수해 운영해 왔으나, 당시 계약은 건물만 매입하고 땅은 뉴욕 대교구로부터 임차하는 구조였다.

이번 토지 인수는 임차료 상승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부지는 25년마다 임차료를 갱신하는 조건이었는데, 최근 뉴욕 지가 상승에 따라 갱신 시점 도래 시 막대한 임차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롯데호텔 측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수 비용이 향후 발생할 누적 임차료보다 저렴해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부채가 줄어들면서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 건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인수 자금은 보유 자산의 유동화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맨해튼 미드타운 핵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향후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롯데호텔은 이번 부지 인수를 계기로 북미 시장 내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위탁경영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이번 부지 인수는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 호텔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혁신당 “조은석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깊은 유감” /사진 뉴시스
▲여연 부원장에 장예찬…“장동혁 지도부 지키는 일에 물불 가리지 않겠다”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 출마…“당정대 간 조율자 역할할 것”
▲국방부 “특수본, 오늘부터 12·3 비상계엄 수사 개시”

▲與 “국힘, ‘웰빙 필버·농성’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 적극 협력하라”
▲국힘 “고용 연장, 양질 일자리부터 늘려야…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